



●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타이베이국제도서전에 한국은 주제국가로 참가, 세계 출판인들과 관람객들에게 한국문화와 출판산업의 우수성을 전했다.

도서전 개막식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 언론은 150여 석 자리를 가득 채우며 관심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을 통해 한국의 출판문화를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제국가 참가를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하오밍이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조직위원장은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한국과 대만은 한때 서로간에 오해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도서전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 더 큰 교류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하오밍이 조직위원장은 한국문화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이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디지털 출판산업을 대만은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도서전 개막식에는 대만 천수이볜 총통이 참석, 개막식을 선포해 현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주제국가 한국은 이번 도서전에서 'Reading Korea Feeling Korea'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전시장 내 각 부스를 돌며 펼친 문화마를 들소리의 시물놀이 공연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가 상영된 주제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출판인쇄 시연·체험행사, 북아트 수제종이 만들기 체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김인환 교수와 서울대 이성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한국 문학 특강', 한국과 대만 간 출판교류활성의 해법을 찾은 '한·중 번역 세미나', 비람직한 한류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 '거부할 수 없는 한류 세미나'도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국대표작가 이문열 씨의 참석은 도서전 내내 뉴스거리로 주목받았다. 이씨의 작품 <삼국지>가 한국에서 1,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대만 출판관계자들은 신서발표회에 참석,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2005년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은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 전체 3홀에서 9일 동안 열렸다. 1홀에는 메인전시관을, 2홀에는 만화관을, 3홀에는 아동관을 준비한 도서전에는 20여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4]

박용두 기자

